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4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국내 u-City 추진현황과 전망



인터뷰 :

인천 u-City포럼 객경섭 수석부회장과과의 만남



I/D/I/소/식



인천발전연구원-인하대학교 학·연 교류 협정 체결
우리 연구원(원장 어윤덕)은 인하대학교(총장 이본수)와 지난 20일 오...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행사] '글로벌 국토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교통·SOC ...

Zoom INcheon



남구-"꿈이 실현되는 비전도시에 인천의 문화가 오롯이 살아숨쉬다"
인천도호부청사(인천시 유형문화재 제1호)는 지방의 정치, 경제, 행정 ...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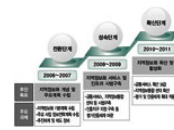
핀란드 헬싱키 아라비안란타 'Virtual Village'
아라비아란타 (Arabianranta : 아라비아의 해안)는 핀란드 헬싱...

IDI연구



인천시의 효율적 u-City 추진방안 : 지역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도시의 단계적 융합에서 출발하는 유비쿼터스 도시(이...

인천지표



광역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수준 평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일 또는 복수의 지역에 지역 문제해결과 ...

국내 u-City 추진현황과 전망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민 병 호 상무

최근 국내의 큰 화두중 하나는 u-City이다. u-City는 다양한 가치요소(기술, 비즈니스, 산업)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가치창조를 의미하는 컨버전스 전략의 하나로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시에 적용함으로써 기존도시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상승을 통한 이윤확대가 주된 목적일 것이다. 정부측면에서도 관련 산업과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u-City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관련기술의 정립, 서비스체계, 법제도적 지원 등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2006년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u-City건설을 공동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2008년 3월 국토해양부에 의해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과 2008년 8월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u-City 계획부터 사업시행 및 준공까지의 추진절차, 구축 후 관리운영, 추진지구와 보조·용자, 시범도시 지정 및 인력양성과 연구개발내용까지 포함되어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민간자율을 기반으로 하여 u-City 시장 활성화와 세계진출을 위해 「경제활성화와 세계시장선점을 위한 U-City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u-City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U-City를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의 틀 안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는 마련되었고, 산업적으로도 2010년 세계 U-City 산업은 7,025억 달러(일본 총무성), 국내시장은 50조원(전자부품연구원)대의 대규모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u-City를 도시계획·개발·관리 및 운영관련 산업과 첨단 IT 산업이 융복합된 새로운 산업분야(CIT : Construction + IT)로 발전시켜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팔을 걷어 붙이고 적극 지원해야 할 때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u-City건설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주요 추진전략의 내용은 ①시행령제정 등 제도기반의 완성을 위한 후속조치의 시행과 더불어 ②U-Eco City R&D를 통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③재정지원 등을 통해 U-City 관련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④U-City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교육·훈련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4대 추진전략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U-City를 국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U-City의 경험과 국산화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U-City 국제협회의체 등을 구성하여 U-City 해외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생활과 산업에 IT활용을 촉진하여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2012년까지 국민소득4만불 달성과 총 16.5만 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식정보 강국이 되며, 일류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IT활용 촉진 및 新비즈니스 창출 전략(IT Innovation 2012)」을 수립하였다. 최근 주력산업과 IT융합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점을 발굴하고, 기술로드맵, 통계조사 등 융합기반조성을 통해 산업IT융합혁신 고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산업IT융합 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도시간 상호융성 문제 등 난개발에 따른 비효율성 초래 방지를 위한 u-City IT 인프라구축 서비스 참조 모델과 기술 기준의 정립을 위해 2008년 「u-City IT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 v1.0」을 각 지자체에 배포한데 이어 2009년에는 사업 진행시 상시 참고 가능하도록 u-City 추진 프로세스를 구체화한 IT 인프라별 상세 구축 가이드라인 연구와 국토해양부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u-City 구축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가 협의하여 u-City 구현을 위해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과 u-City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의

u-City건설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u-City건설은 정부가 지난해 8월 건국6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전략으로 선포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치하여,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첨단그린도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유비쿼터스 관련기술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나 국내 건설사업(GDP 대비 15.4%)이 2007년 세계시장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u-City건설의 핵심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IT융복합 산업은 세계 시장점유율 0.2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세계건설시장은 첨단 IT기술과 건설산업의 융합으로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건설로 삶의 질을 향상을 꾀하고 있다. 최근 우리정부도 u-City 기반시설 지능화 및 운영기술 등의 중장기적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u-City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민과 기업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고 도시의 주요현안 해결과 미래상 달성을 지원하고 위해 u-Seoul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 청계천, 서울교통관리센터, 향후 건립 예정인 도서관 등에 대한 유비쿼터스 기술적용을 4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보화기획단을 주축으로 모바일 포털구축, 모바일 GIS구축 ISP 및 기본설계, u-Seoul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용역, 청계천기반 u-Seoul 테스트베드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실·국·분부를 중심으로 은평뉴타운 구축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8,500억 원 이상을 직접투입하고 민간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KT와 협력을 통해 u-부산사업을 추진 중이다. "모든 향만물류 주체가 참여하는 통합커뮤니티 기반하에 부산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3-Hub Port달성"이라는 비전을 가진 U-Port와 전시회 및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시설에 유무선 정보통신인프라를 설치하여 유비쿼터스 기술과 제품을 접목하여 전시회 및 국제 회의에 참가한 참관객에게 다양한 정보서비스와 체험을 제공하는 U-Convention, 대중교통 요금 지불 서비스, 유료도로 자동 요금징수 서비스, 주차정보 서비스, 보행자 정보 등 13개 서비스구현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자율 신형 교통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U-Traffic, 질환 치료 위주의 의료서비스에서 벗어나 시공간적 제약극복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가치를 증대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U-Health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파주 u-City는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시행자로서 수도권 서북부의 친환경생태도시, 복합문화체험도시, 첨단신도시,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 조성을 목표로 2003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1·2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시, 부산시 등 7개 특별·광역시 모두와 성남 판교, 파주 교하, 수원 광교, 화성 동탄, 용인 흥덕, 아산, 인천 송도 등의 신도시를 포함하여 약39개 지자체에서 u-City를 추진하고 있다. 신도시 u-City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약 230만 명 이상이 u-City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며, 생활, 환경,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u-City서비스를 제공 받게 될 것이다.

u-City건설 사업은 현재의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위주의 공공u-City사업에서 수요자 서비스 중심의 민간u-City사업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또한 환경, 교통, 방범 등 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 교육, 교통, 문화, 레저, 정보 서비스로 확대 변화될 것이다. 공공u-City사업에 비해 민간u-City 사업규모는 프로젝트당 약5~6배 이상으로, 전자부품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시장을 2010년 약 51조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계시장규모는 약 7,0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투자를 통한 다각적인 지원과 지능형 기반시설, 지능형 건설·토목자재, 통합운영플랫폼 등의 건설·IT융합표준기술 개발 및 발굴을 통해 국제표준을 주도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면 u-City산업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최근 국내의 큰 화두중 하나는 u-City이다. u-City는 다양한 가치요소(기술, 비즈니스, 산업)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가치창조를 의미하는 컨버전스 전략의 하나로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시에 적용함으로써 기존도시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상승을 통한 이윤확대가 주된 목적일 것이다. 정부 측면에서도 관련 산업과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인천 u-City포럼이 구현할 미래도시 지역산업활성화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 담당할 터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트리에' 33호에서는 인천시의 창조적인 u-City 건설을 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미래도시를 구현하고자 출범한 인천 u-City포럼의 수석부회장 광경섭 교수(인하대)를 만나 인천시의 u-City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들어보고, 효율적인 u-City 사업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보았다.



인천 u-City포럼 수석부회장
광 경 섭 교수(인하대학교)

Q. 먼저 인천 u-City포럼의 올해 역점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인천 u-City포럼의 역점 사업이라고 한다면,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 중에 동시에 진행되는 ISCIT(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행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인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물류사업, IT산업, u-City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국내외에 보여주고, 크게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IT의 발전상을, 세부적으로는 인천시의 다양한 u-City 추진계획 및 IT산업의 적극적인 육성방안들을 홍보하는데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 추진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더 큰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우선 World IT Show를 유치할 계획이며, 향후 송도 RFID/USN 지원센터와 함께 'RFID/USN Korea' 행사를 주관할 계획입니다.

Q. 2년간의 u-City포럼의 주요 운영 성과는 무엇이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천 u-City포럼이 2007년 9월에 출범해서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는데, 설립 초에는 조직구성과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u-City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물론 u-City라는 것이 완벽하게 정형화된 의미는 없지만 인천시나 공무원, 포럼 자체 임원들에게도 확실치 않았던 개념을 바로잡고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포럼이 순수민간단체다 보니 재정적 지원이 미비해서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 지원해야 할 뚜렷한 명분이 없어서 인천시의 지원자세도 적은 상태이며 따라서 운영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중에 있으며 과연 얼마나 좋은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지만 4월에 정책토론회를 갖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 할 생각으로 방향설정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 등을 짚어볼 생각입니다.

Q. 인천 u-City포럼의 앞으로의 계획 또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시민들에게 u-City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고,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u-City

사업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인천 사업들이 인천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들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내외에 인천의 u-City를 홍보하고, World IT Show 등의 다양한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u-City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 기구(조직)의 설립 등 통합적인 개념으로 u-City모습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인천 u-City포럼을 어떠한 방향으로 존속해나가야 할 것인지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간의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Q. 인천 세계도시축전 기간에 IEEE의 ISCIT2009라고 하는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행사에 대해 간단히 홍보를 해주십시오.

ISCIT2009는 올해 9월 28부터 30일까지 3일간 열리는 대규모의 국제행사로 전 세계 30개국에서 최소한 6~7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대한 결과발표 및 산업현장에 실제 적용된 다양한 신기술을 소개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일반 세션과 특별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u-City 관련 특별세션을 비롯하여, ITS, RFID/USN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발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SCIT2009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IT분야 학회인 미국의 IEEE와 일본의 IEICE학회가 공동 스폰서로 하며, 한국통신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ITS학회, 한국전파학회 등 다수 국내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또한 인하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국내외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ISCIT2009 행사 진행을 통해 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 중 많은 외국인을 유치하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의 주목적인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대한 발표와 함께, 산업체의 상품화는 물론 u-City 지역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Q. 인천의 u-City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이 u-City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로 대기업 중심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역내 중소기업이 u-City 추진에 따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지역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등 여러 차원에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인천u-City포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 끝으로 인천 u-City 포럼과 한국 ITS학회, UWB-ITRC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구들을 총괄하고 계신데 인천의 첨단융합산업의 전망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현재, ITS학회 등 많은 기업들이 학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인천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활동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 소재 기업이 적극적으로 학회 및 관련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다양한 u-City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각종 R&D사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및 투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인천시의 열악한 IT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주력했으면 합니다.



■ 대담 : 정지원(산업경제연구실·연구위원)

■ 기록 : 장순지(시정연구협력센터)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프리에' 33호에서는 인천시의 창조적인 u-City 건설을 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미래도시를 구현하고자 출범한 인천 u-City포럼의 수석부회장 광경섭 교수(인하대)를 만나 인천시의 u-City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들어보고, 효율적인 u-City 사업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보았다.

인천발전연구원-인하대학교 학·연 교류 협정 체결

■ 인천발전연구원-인하대학교 학·연 교류 협정 체결
인천시 현안문제 해결 제시 및 정책개발 앞장설다

우리 연구원(원장 어윤덕)은 인하대학교(총장 이본수)와 지난 20일 오후 4시, 인하대 본관 제1회의실에서 관내 학술기관과 연구기관간의 협력 및 교류를 도모하고 활성화하고자 학·연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식은 인천광역시의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학·연 공동협력체계를 구축, 연구는 물론 인원 및 지식정보교류 등 제반 영역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상호 연구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갈 전망이다. 한편, 협정서 조인이 있는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공동연구, 초청연구원, 겸임교수, 공동주최 학술행사, 자료교환 등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펼쳤으며, 어윤덕 원장은 '관내 학술기관과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활발히 교류해 나가면서 인천광역시에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시정자문을 제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이영수 남구청장 초청 연찬회

우리 연구원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제3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이영수 남구청장을 초청해 강연 및 연찬회를 가졌다. 이 구청장은 강연에 앞서 남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남구의 주요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영상물을 제시했다. 이어서 남구의 기본현황과 지역여건 등을 소개하면서 남구의 비전과 과제인 7대 프로젝트와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올해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신기시장, 석바위시장 등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공공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방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홍보하면서 이 구청장은 올해로 9회를 맞는 이 행사가 자치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도시브랜드가 경쟁력이다; 한국 도시브랜드 가치평가' 현대경제연구원 이철선 코스모리서치센터장 초청 강연

우리 연구원은 지난 1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현대경제연구원 이철선 코스모리서치센터장을 초청해 '도시브랜드가 경쟁력이다; 한국 도시브랜드 가치평가'를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이철선 센터장은 도시브랜드의 의미와 구성요인, 도시브랜드 활성화 사례 및 세계브랜드 순위와 견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2007년 세계도시브랜드와 한국7대도시브랜드의 가치 산정을 비교해 보여주었으며 경제 지표별 경쟁력 순위, 관광 인프라시설, 도시브랜드 담당기관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철선 센터장은 '인천이 향후 아시안 게임 등 다양한 호재로 도시브랜드 위상제고의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도시브랜드의 총체적이고 신속한 통합관리 조직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기대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를 중심으로 전략 기반의 컨트롤 타워 구축과 운영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우리 연구원(원장 어윤덕)은 인하대학교(총장 이본수)와 지난 20일 오후 4시, 인하대 본관 제1회의실에서 관내 학술기관과 연구기관간의 협력 및 교류를 도모하고 활성화하고자 학·연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식은 인천광역시의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학·연 공동협력체계를 구축, 연구는 물론 인원 및 지식정보교류 등 제반 영역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상호 연구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갈 전망이다.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행사] '글로벌 국토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교통 · SOC 투자방향과 추진전략' 세미나 개최 (4.28):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우리나라 도시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개최(4.29):국토연구원 031-380-0114

◆[행사] 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 : 학교컨설팅 세미나 개최(4.29):한국교육개발원 02-3460-0114

◆[행사] '제1차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단 워크숍'개최(4.29):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심포지움]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움」개최(4.30):국토연구원 031-380-0114

◆[행사] '주요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세미나' 개최(4.30):산업연구원 02-3299-3114

◆[행사] '글로벌 경제위기하의 고용정책 토론회' 개최(4.30):한국노동연구원 02-782-0141

◆[포럼] "빈곤포럼" 개최(4.30):한국보건사회연구원 02-380-8104

◆[행사] '글로벌 국토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교통 · SOC 투자방향과 추진전략' 세미나 개최(4.28):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우리나라 도시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4.29):국토연구원 031-380-0114 ◆[행사] 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 : 학교컨설팅 세미나 개최(4.29):한국교육개발원 02-3460-0114 ◆[행사] '제1차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단 워크숍'개최(4.29):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심포지움]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개최(4.30):국토연구원 031-380-0114 ◆[행사] '주요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세미나' 개최(4.30):산업연구원 02-3299-3114 ◆[행사] '글로벌 경제위기하의 고용정책 토론회' 개최(4.30):한국노동연구원 02-782-0141 ◆[포럼] "빈곤포럼" 개최(4.30):한국보건사회연구원 02-380-8104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09년 4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남구-"꿈이 실현되는 비전도시에 인천의 문화가 오롯이 살아숨쉬다"

남구



"꿈이 실현되는 비전도시에 인천의 문화가 오롯이 살아숨쉬다"

인천의 진산 문학산

인천의 주산 문학산은 2천여년전의 백제 건국 설화를 품고 있다. 해발 213m의 문학산은 학이 많아 학산, 옛 인천도호부 남쪽에 있다하여 남산, 산꼭대기 봉수대의 모습을 본따 배꼽산이라 불리었다. 문학산을 오르는 길은 문학경기장, 학익동, 시립사격장, 선학동 등 여러 갈래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학동에서 출발해 사모지고개, 연경정, 나무계단, 노적봉에 이른다. 문학산에 오르면 인천이 한눈에 들어온다. 바다, 작은 섬들, 송도국제도시 등등. 정상에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문학산은 우리에게 엄마의 품에 안긴듯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



▲문학산성(인천시 기념물 제1호)은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의 정상에 둘로 쌓은 석상으로 미추홀고성 남산성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인천도호부청사와 인천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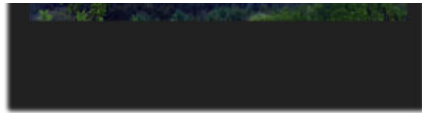
문학경기장 북문 광장으로 나오면 맞은편에 위치한 인천도호부청사와 인천향교가 보인다.

인천도호부청사(인천시 유형문화재 제1호)는 지방의 정치, 경제, 행정 등의 업무를 맡아보던 지금의 인천 시청과 같은 곳이다. 인천도호부청사는 전통혼례, 무형문화재, 어린이극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연 만들기, 탈 만들기, 제기차기, 윷놀이, 널뛰기, 투호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있어 우리의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인천도호부청사 위쪽에 인천향교(인천시 유형문화재 제11호)가 있다.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설립된 지방 교육기관으로 지방교육과 성현의 제사를 담당하였던 곳이다.

2002 한일월드컵 4강의 신화가 시작된 문학경기장



인천의 진산 문학산 기슭에 하얀 돛을 펴고 있는 문학경기장은 5만1,237석 규모의 축구경기장과 3만석 규모의 야구경기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경기장 주변에는 체육활동, 휴식공간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인라인 스케이트 및 스케이트 보드를 탈 수 있는 X-게임장과 인공암벽장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성문화체험관과 어린이박물관이 있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박물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박물관으로, 전시물을 수시로 교체, 변경, 전시하고 있다.



어린이 박물관으로써 전시물을 손으로 직접 만지고 조작하는 체험식 박물관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살아있는 체험교육의 장일뿐 아니라 온 가족이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유쾌한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축제 한마당

미추홀문화축제는 매년 5월 1일 구민의 날을 맞아 43만 구민 화합의 행진과 도약의 한마당으로 이루어진다. 동별 대동제 및 퍼레이드, 씨름왕 선발대회, 남구제일향토음식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주안미디어축제는 남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영상미디어 집약지인 주안에서 개최된다. 미디어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고유 축제로서 미디어아트전, 비디오아트, 거리공연 e-감성영화제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이 펼쳐지며 최첨단미디어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문화를 선도해가고 있다.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자치와 함께 소통의 미래로란 주제로 작품전시관,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회,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학습기관 홍보, 외국인 다문화 체험관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진다.

예술을 창조하는 문화공간

학산소극장은 남구 용현동에 위치해 있으며, 114석 규모의 연극전용공간으로 마당놀이 등 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시연센 소극장은 용현동 천주교회에 위치해 있으며 100석 규모의 국내 유일의 교육연극센터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연극교실, 시민연극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마추어에게 열린무대」와 「해설이 있는 무대」등이 올려지고 있다

돌체소극장은 문학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4층 규모로 관내 공연단체와 동아리 등의 창작 및 워크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클라운마임축제 등 국제 축제를 통한 특화사업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미디어센터(CAMF)는 주안동에 위치해 있으며, 기초적인 미디어 교육에서부터 영상물제작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의 꿈과 이상을 키우는데 밀거름이 되고 있다.



인천도호부청사(인천시 유형문화재 제1호)는 지방의 정치, 경제, 행정 등의 업무를 맡아보던 지금의 인천시청이다. 인천도호부청사는 전통헌레, 무형문화재, 어린이극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연 만들기, 탈 만들기, 제기차기, 윷놀이, 널뛰기, 투호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있어 우리의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인천도호부청사 위쪽에 인천향교(인천시 유형문화재 제11호)가 있다.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설립된 지방 교육기관으로 지방교육과 성현의 제사를 담당하였던 곳이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09년 4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핀란드 헬싱키 아라비안란타 'Virtual Village'

산업경제연구실 진동진 초빙책임연구원

핀란드 헬싱키 아라비안란타 'Virtual Village'



아라비아란타(Arabianranta : 아라비아의 해안)는 핀란드 헬싱키 도심에서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가를 말한다. 이곳은 20세기 중반까지 유럽 최대의 자기(磁器)공장 밀집지역으로서 지금은 헬싱키에서 가장 야심적인 도시 실험이 진행되는 곳이다.

핀란드 헬싱키시는 아라비안란타의 쇠락한 옛 공장 지대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이 지역에 헬싱키 미술대학, 재즈음악원 및 정보통신 벤처기업 등을 유치하였으며, 필요한 주거지는 바닷가

옛 항구 부근에 만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아라비아 해안가에는 휴양지를 방불케 하는 최첨단 주거지가 조성됐다. 아라비안란타 재개발 프로젝트는 총 850,000㎡ 면적에 2010년까지 7천~1만 2천명의 거주민, 8천개 이상의 일자리, 6천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라비안란타가 핀란드는 물론이고 유럽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지 쇠락한 공장지대를 일급 주거지로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아라비안란타에서는 모든 도시 구성원들이 인터넷 공간의 도시정보에 무선통신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버추얼 빌리지(Virtual Village)'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아라비안란타의 모든 사무실과 상점, 학교, 개인 집을 인터넷과 무선통신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아라비안란타 주민의 일상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집을 얻으려면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상마을에 접속해 임대시장에 나온 아파트를 찾으면 된다. 쇼핑을 나갈 때는 미리 슈퍼마켓의 재고를 확인하고 집을 나선다.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알아서 위치를 찾아온다. 즉, 현실의 도시와 무선 커뮤니티가 일체화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된다.

'버추얼 빌리지' 프로젝트는 헬싱키와 기존 도시의 문화를 보존하고, 주변의 예술관련 산업 및 교육을 연계하여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 지역성을 대표하는 예술과 문화를 내세워 이를 활용함과 동시에 도시의 다양성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역사와 문화의 보존이라는 계획의 특성상 외적인 형태보다는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의 아날로그적인 문화와 현대의 디지털적인 소통의 적절한 조화가 도시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헬싱키 시의 주도하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의 장기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는 아라비안란타 '버추얼 빌리지' 프로젝트는 헬싱키 시를 자연과 바다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이며 또한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편리하면서도 안락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헬싱키 버추얼 빌리지 프로젝트

구 분	주요내용
규 모	* 850,000㎡ - 계획상으로는 2010년까지 12,000명의 주민, 700개의 IT기업, 8,000명의 고용, 6,000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게 됨.
기 간	* 2000 ~ 2010년
추진주체	* 헬싱키 시
위치	* Arabianranta(Arabia Shore)
적용기술	* Network를 통한 Online Service
특징	* 기존 도시의 문화를 보존 * 주변의 예술관련 산업 및 교육을 연계하여 진행 * 지역성을 대표하는 예술과 문화를 내세워 이를 활용함과 동시에 도시의 다양성 창출

아라비아란타(Arabianranta : 아라비아의 해안)는 핀란드 헬싱키 도심에서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가의 말한다. 이곳은 20세기 중반까지 유럽 최대의 자기(磁器)공장 밀집지역으로서 지금은 헬싱키에서 가장 야심적인 도시 실험이 진행되는 곳이다. 핀란드 헬싱키시는 아라비안란타의 쇠락한 옛 공장 지대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이 지역에 헬싱키 미술대학, 재즈음악원 및 정보통신 벤처기업 등을 유치하였으며, 필요한 주거지는 바닷가 옛 항구 부근에 만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아라비아 해안가에는 휴양지를 방불케 하는 최첨단 주거지가 조성됐다. 아라비안란타 재개발 프로젝트는 총 850,000㎡ 면적에 2010년까지 7천~1만 2천명의 거주민, 8천개 이상의 일자리, 6천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라비안란타가 핀란드는 물론이고 유럽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지 쇠락한 공장지대를 일급 주거지로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아라비안란타에서는 모든 도시 구성원들이 인터넷 공간의 도시정보에 무선통신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버추얼 빌리지(Virtual Village)’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4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시의 효율적 u-City 추진방안 : 지역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도시의 단어적 융합에서 출발하는 유비쿼터스 도시(이하 유시티 또는 u-City)는 새로운 도시모델로서 미래 도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
-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시티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다소 추상적인 추진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
- 지금까지의 유시티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자발적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
- 본 과제에서는 지금까지 유시티 추진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별 추진주체의 역할과 협력관계로부터 유시티 사업 추진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현실적 대안을 지역의 유시티 추진체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함.

■ 지역 유시티추진기구 구축의 필요성

- 유시티 사업 시행과정의 다양한 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및 조직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짐. 반면, 시범사업에 이은 본 사업이 점차 활성화되면 지자체가 사업시행의 주축이 될 수 밖에 없으나 중앙기구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 산하의 추진기구가 유시티의 촉진, 기술개발, 표준화 선도, 제도적 개선 등 공통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반해, 지자체의 추진기구는 지역 u-City 사업의 주도, u-서비스의 지역화, 지역 특화서비스의 발굴, 지역별 유시티 계획 수립 및 촉진, 유시티의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등 주로 지역별 유시티 사업의 시행과 추진과정의 효율화에 관련한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럼을 포함한 지역별 유시티 추진기구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내 개별 추진기관(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 해양항만청 등)의 독립적인 사업 추진은 유비쿼터스 신기술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개별 기관에 국한시켜 값비싼 시범사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경험분산'과 '민간기업 종속'이라는 결과를 초래함.
 - 개별 추진기관들도 사업추진에 따른 리스크 분산 등 통합·조정 기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선행 사업추진 기관으로부터의 실효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따라서 유시티 건설에 대한 경험의 집중과 축적 및 개별 추진기관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총괄 추진기구가 필요함.

■ 인천 유시티추진기구의 주요 역할 및 기능

- 지역내 개별 추진주체의 유시티 계획, 신구도심의 유시티 사업에 대한 통합·조정
- 지역내 유시티 관련사업의 지원 및 프로젝트관리 대행
- 유시티 관련 산학연 핵심기술 개발 및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 유시티 관련 각종 정책연구의 수행
- 지역 유시티 사업의 통합평가 및 환류체계의 구축
- 유시티 관련 각종 협의회·위원회 및 포럼의 상시 운영
- 인천시의 유시티 사업(교통, 방범·방재, 물류, 사회복지, 소방안전 등) 자문 및 심의·조정

■ 인천 유시티추진단 설립방안

- 설립방안 및 조직구성
 - 초기 유시티추진단(가칭)의 조직구성원 총 8명으로 하되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상시인력을 최소화 함(<그림 1> 참조).

○ 예산확보

- 인천시의 안정적 재정지원 필요.



<그림1> 유시티추진단의 조직구성(안) 및 기능

■ 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추진체계의 구축

○ 추진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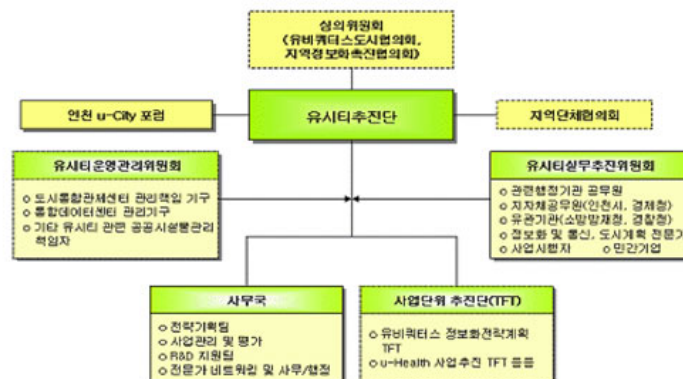
- 20인 이내의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 공공 및 민간 사업자, 각계 전문가 등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유시티추진단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도록 해야 함. 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나 유시티건설지원법의 유비쿼터스도시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음.

○ 지역내 개별 추진주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 유시티추진단은 지역내 개별 추진주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들 간의 통합 및 연계기능에 치중해야 함.

- 향후에는 도시통합관제센터, 통합데이터센터, 기타 유시티 주요 시설물 관리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유시티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함.



<그림2> 인천 유시티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추진체계 구성방안

■ 기타

○ 통합기능의 제도화

- 공공기관의 유시티 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프로젝트 관리 위탁사업을 통해 추진단과 개별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관리하여 대규모 유시티 사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

① 발주기관의 행정인력 소모를 줄임.

② 공공기관에서 추진되는 유시티 사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통합·축적

③ 프로젝트관리 위탁관리 사업에 의한 수익은 유시티 관련 연구개발과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에 재투자함. 즉, R&D를 통해 지역 전문가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그림 3> 참조).

○ 추진단의 전문성 확보

- 추진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연구개발 투자와 프로젝트관리 위탁사업을 토대로 한 집중된 경험 축적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앙정부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 신산업 유치에 대한 지역간 경쟁구도가 치열해지면서, 정부의 시범사업 또는 선도사업에 대한 참여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추진단은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정부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림3〉 지역 유시티 추진역량 제고 및 R&D 투자확대 방안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도시의 단어적 융합에서 출발하는 유비쿼터스 도시(이하 유시티 또는 u-City)는 새로운 도시모델로서 미래 도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유시티 추진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별 추진주체의 역할과 협력관계로부터 유시티 사업 추진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현실적 대안을 지역의 유시티 추진체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광역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수준 평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김동민 정책사업부 정책사업팀장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일 또는 복수의 지역에 지역 문제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도시·기반 분야별로 정보기반 및 정보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정책적 활동을 지역정보화라고 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지역정보화를 문화, 생활 등 여타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IT를 통한 지역 고유의 특화서비스, 해당 지역생활권 중심의 정보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정보화는 제1차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7-2000), 제2차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의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법제도 마련, 대국민 서비스 기반 조성, 지역간 정보격차해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행정효율성 중심의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인해 고객 중심의 생활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제공은 미흡하였다. u-IT 등장과 주민들의 새로운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전자정부 추진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고,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2007년 3월 지역간 정보격차해소와 행정서비스 수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제3차 지역정보화기본계획(u-life 21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지역정보화 비전

자료: 행정자치부, 제3차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2007.10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5년을 원칙으로 5대 추진전략 하에 3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각 단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3차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그림 2]와 같이 1단계 지역정보화 개념 및 주요 계획 수립, 2단계 지역정보화 서비스 및 인프라 시범구축, 3단계 지역정보화 확산 및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2] 단계별 추진계획

자료: 행정자치부, 제3차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2007.10

■ 중앙부처 지역정보화 사업

○ 2008년 중앙부처의 지역정보화사업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 사업, 부처별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은 광역·기초자치단체 행정업무 표준시스템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주요세부사업으로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지방재정정보화 3단계 사업,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구축,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운영, 표준지방인사행정시스템 운영 등이다.

○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 사업은 자치단체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등이다.

운영 내실과 증진이다.

○ 부처별 지역정보화 사업은 각 부처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 서비스와 전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동통 서비스를 조화롭게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앙-지방-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 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사업

○ 2008년 16개 광역자치단체 주요 정보화 사업은 u-IT를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고도화와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을 기본 전제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인천은 [표 1]과 같이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정보화 주제로 삼아 통합데이터센터구축, 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 전자정부 침해사고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2008년 인천 주요 정보화 사업 계획 현황

예산단위 : 백만 원

지역	정보화 주제	주요계획의 내용	예산	
인천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 각 기관에 산재한 정보자원을 통합, 권력·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데이터센터 구축	지정비 300
		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	· 조직 전체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 정보화 투자 효율 제고 및 업무혁신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ITA/EA) 도입	지정비 300
		전자정부 침해사고대응 체계 (G-CERT)구축	· 시 사이버보안관리센터 보완장비 확충	지정비 1,813

자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국가정보화백서, 2008.8(부분 발췌)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편의와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정보화 교육, 웹사이트 콘텐츠의 질적·양적 향상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및 PC 보급 등을 통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격차해소, 모바일을 활용한 교통, 세정 등의 행정서비스 지원,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및 디지털 문화센터를 통한 평생학습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은 [표 2]와 같이 사이버시티센터 운영, 시민참여형 웹사이트 보강사업, 민원콜센터구축, 모바일 세금납부서비스, 지역주민정보화교육 등의 주민편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2008년 인천 주요 주민편의 정보화 사업 현황

예산단위 : 백만 원

지역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인천	사이버시티센터 운영	· 집합 및 사이버교육, 인터넷카페 등 정보체험관 제공, DVD 영화상영 등 이벤트 실시	지정비 200
	시민참여형 웹사이트 보강사업	· ERMS 솔루션 등 구축	지정비 50
	민원콜센터구축	· 전문상담원에 의한 신속·정확·친절응대로 시민 만족과 감동구현	지정비 2,784
	모바일 세금납부서비스	· 모바일 통한 세금납부 등 구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지정비 55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 지역주민 대상 컴퓨터 교육 실시 및 정보격차해소	지정비 38

■ 지역간 정보화격차 현황

○ 지역정보화는 지역 간에 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며, 그동안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행정적 추진 등의 노력으로 지역 간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 지역 간의 정보화 격차는 존재하고 있다.

○ 인터넷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현황, 이용행태, 인터넷 환경,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활용 등을 측정하기 위해 [표 3]과 같은 지표가 필요하며, 지역정보화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는 가구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을 주로 이용한다.

[표 3] 인터넷 이용실태 지표

지 표	내 용
인터넷이용률	만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자의 비율
컴퓨터 보유율	전체가구 중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UMPC 등 포함), PDA (PDA폰, 스마트폰 포함) 등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인터넷 접속률	전체 가구 중 실제 인터넷접속여부와 관계없이 xDSL, 케이블모뎀, 아파트랜, 무선랜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
이메일 이용률	만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최근 1년 이내 이메일을 이용한 자의 비율
메신저 이용률	만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최근 1년 이내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한 자의 비율
커뮤니티 이용률	만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최근 1년 이내 커뮤니티 (카페, 클럽)를 이용한 자의 비율
블로그 이용률	만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최근 1년 이내 타인의 블로그를 이용(검색 결과 방문한 경우 포함)한 자의 비율
블로그 운영률	만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최근 1년 이내 본인의 블로그를 방문,관리한 자의 비율
파일공유서비스 이용률	만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최근 1년 이내 파일공유 서비스(P2P, 웹하드 등)를 이용한 자의 비율
인터넷쇼핑 이용률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중 최근 1년 이내 인터넷쇼핑을 이용한 자의 비율
인터넷뱅킹 이용률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중 최근 1년 이내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자의 비율
인터넷주식거래 이용률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중 최근 1년 이내 인터넷 주식거래를 이용한 자의 비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08.11(재경리)

○ 2001년부터 2007년간의 연도별 컴퓨터보급률은 [표 4]과 같이 서울, 울산, 인천, 경기 지역이 80% 중후반 대의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전남, 경북 지역은 60% 중반 대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격차는 가구 컴퓨터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차이로서 2003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점차

줄어늘고 있다.

[표 4] 광역자치단체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 추이

		(단위 : %, %p)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 자 체 별	전체	76.9	78.6	77.9	77.8	78.9	79.6	80.0
	서울	87.1	89.0	86.6	87.3	87.5	87.8	88.0
	부산	69.7	72.0	80.7	81.2	81.3	82.6	82.7
	대구	72.9	73.7	74.2	75.6	76.7	78.0	78.1
	인천	85.1	86.5	88.2	82.3	83.2	84.2	85.1
	광주	69.1	71.3	78.1	83.5	84.3	84.5	84.6
	대전	81.1	83.2	79.7	81.5	82.2	82.9	83.4
	울산	88.8	88.1	84.6	85.7	86.8	86.7	86.8
	경기	84.2	88.1	85.7	85.0	85.0	85.0	85.1
	강원	65.0	64.3	68.7	70.3	70.6	72.5	76.0
	충북	64.0	72.2	69.6	71.2	71.4	73.8	74.4
	충남	67.3	68.8	64.6	65.2	67.2	68.6	68.9
	전북	72.0	75.8	66.1	64.9	66.1	68.0	70.1
	전남	63.7	63.8	58.8	60.5	62.5	64.7	65.5
	경북	61.0	59.7	61.7	61.8	64.4	65.3	65.6
	경남	64.0	65.0	65.7	66.0	66.7	67.8	68.4
	세주	85.7	73.5	69.4	70.6	71.1	75.0	75.1
	격차	27.8	29.3	29.4	26.8	25.0	23.1	22.5

자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국가정보화백서, 2008.8

○ 2001년부터 2007년간의 연도별 인터넷 이용률은 [표 5]와 같이 서울, 울산, 인천, 경기 지역이 80% 중후반 대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전남, 경북 지역은 60% 초중반 대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격차는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차이로서 최근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다.

[표 5] 광역자치단체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 추이

		(단위 : %, %p)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 자 체 별	전체	56.6	59.4	65.5	70.2	72.8	74.8	79.0
	서울	63.4	66.0	69.1	73.6	76.1	78.1	86.4
	부산	52.0	55.3	64.0	69.7	70.8	73.5	82.5
	대구	50.0	54.5	63.6	68.8	70.4	73.0	78.1
	인천	61.2	61.6	69.9	73.2	75.9	79.2	84.8
	광주	56.6	57.1	71.1	75.8	77.9	78.7	82.9
	대전	61.8	59.1	71.8	72.5	75.3	75.9	82.3
	울산	63.9	67.8	74.6	79.1	81.8	83.6	86.1
	경기	64.5	66.9	69.6	75.5	77.8	79.7	84.8
	강원	51.0	52.6	55.7	63.5	65.9	67.2	72.9
	충북	48.6	53.6	61.5	66.4	69.1	70.7	74.3
	충남	45.2	45.5	56.0	57.9	63.1	65.1	68.9
	전북	51.8	54.0	59.5	65.2	67.6	68.6	68.4
	전남	43.0	48.6	53.3	58.7	63.0	63.4	60.3
	경북	48.8	51.8	60.0	59.4	63.6	65.1	63.8
	경남	46.1	52.2	62.1	68.4	70.7	71.5	68.4
	세주	56.1	61.8	59.6	66.9	67.8	70.1	74.3
	격차	20.9	22.3	21.3	21.2	18.8	20.2	26.1

자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국가정보화백서, 2008.8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표 6]과 같이 07년에 투입, 변화관리, 활용, 성과 및 공통 등 5개 부문에 걸쳐 광역 17개, 기초 13개 지표를 구성하여 2007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6] 2007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평가 지표 및 배점

부문	평가항목	배 점			
		광역		기초	
		시	도	시	군/구
투입	정보화 투자 예산비율	4	4	5	5
	정보화 인력비율	4	4	5	5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	6	6	7	7
	정보화마을 지원수준	-	6	-	-
	정보화 교육수준	4	4	4	5
변화 관리	자체 정보화 교육 실적	4	4	4	5
	제도 개선실적	4	4	-	-
	주민정보화 교육실적	-	-	4	5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이용률(광역)	10	10	-	-
활용	시도 업무관리시스템 이용률(광역)	6	6	-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활성화(기초)	-	-	12	13
	GIS 활용실적	6	-	10	-
	m-Government 활용수준	4	4	5	6
	홈페이지 수준	8	8	10	13
성과	우수사례	10	10	12	12
	시민 설문조사광역	5	5	-	-
공통	홈페이지 개인 정보 노출건수	10	10	10	12
	보안 수준	10	10	12	12
	기초자치단체 지원수준(광역)	5	5	-	-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55호, 2009.3

○ 평가 결과 중 광역자치단체 각 부문별 측정 항목들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투입 부문의 정보화 인력 비율이 06년 2.54%에서 07년에는 2.74%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은 06년 8.38건에서 07년 15.56건으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변화관리 부문의 자체정보화 교육 개회건수의 경우에는 06년 37.06건에서 07년 42.13건으로 증가하였다. 활용 부문의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이용률은 06년 43.79%에서 07년 59.42%로, GIS 활용 업무수(광역 시 부문)는 06년 25.00건에서 07년에 39.57건으로, 주민 1인당 SMS 발급건수의 경우에는 06년 0.20건에서 07년 0.53건으로, PDA 활용업무수는 06년 3.19건에서 07년 6.56건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치단체별 전자정부추진 평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평가결과	기초자치단체
------	--------

숙성항목	2007년	2008년	행정계통별		인구 규모별			
			시 평균	도 평균	100만 미 만	100만~ 500만	500만 이상	
정보화 예산 비율(%)	0.54	0.86	-	-	-	-	-	
정보화 투자예산 비율(%)	-	-	0.52	0.56	0.06	0.53	0.43	
정보화 인력 비율(%)	2.74	2.54	-	-	-	-	-	
정보화 인력 비율(명/100인)	-	-	0.08	0.06	0.06	0.07	0.07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	구축 건수	15.56	8.38	-	-	-	-	
	구축 실적(명수)	-	-	56.86	40.89	134.00	29.23	126.00
구축비율(%)	-	-	61.93	76.10	193.33	56.51	101.70	
정보화교육 지원 수준(명수)	79.34	83.19	-	79.24	72.59	83.51	56.05	
정보화교육 수준(명수)	0.70	-	1.07	0.42	0.59	0.81	1.99	
자체 정보화 교육 실적	개회 실적(명수)	42.13	37.06	34.71	47.89	62.00	42.54	29.50
교육 실적	교육 실적시간	3.70	-	2.61	4.55	2.69	4.12	1.93
제도 개선 실적	정보화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건수	8.63	-	7.00	9.89	9.00	8.69	8.00
	IT 관련 회 의결안	-	-	-	-	-	-	-
	정보화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건수	2.88	-	1.86	3.67	1.00	3.15	2.00
이용률(%)	59.42	43.79	58.32	60.29	66.49	60.59	48.30	
제도 행정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이용활성화 자체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명수)	6.38	-	6.14	6.44	8.00	7.08	0.50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건수	47.25	-	170.29	129.33	102.00	90.69	147.50
제도 업무관리시스템 이용률	문서관리 카드 활용도(%)	57.66	-	69.44	48.50	93.82	63.75	0.00
	도입시도(명수)	2.88	-	-	-	-	-	-
	GIS 활용 업무수	305.7	25	39.57	-	0.00	40.00	37.00
GIS 활용 실적	GIS DB 구축건수	25.99	-	25.86	-	0.00	25.33	29.00
	도로, 상·하수도 등 DB 구축비율(%)	96.76	-	96.76	-	0.00	96.05	100.00
	SMS 활용 실적 (주민 민원 상담건수)	0.53	0.20	0.54	0.52	3.65	0.35	0.14
m-Government 활용수준	PDA 활용 업무수	6.56	3.59	4.29	8.33	13.00	6.54	3.93
	휴대이디 수준(명수)	80.09	-	79.41	81.40	84.37	79.15	84.06
우수 사례명(명수)	81.25	3.86	82.00	80.67	77.00	81.57	82.57	
사전 설문조사(명수)	63.96	-	64.43	63.62	64.40	64.02	63.45	
휴대이디 개인 정보 노출 건수	575.75	-	1103.71	120.78	0.00	707.69	6.00	
보안 수준(명수)	-	-	76.47	78.40	85.54	77.65	73.01	
기초자치단체 지원 수준(명수)	73.52	-	73.02	73.90	76.60	73.17	74.24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55호, 2009.3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투입 부분의 정보화 예산비율은 06년 1.03%에서 07년 0.83%로 감소하였으나, 정보화 인력비율의 경우 06년 1.99%에서 07년 2.23%로 증가하였고,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은 06년 4.40건에서 07년 4.28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관리 부분의 자체정보화교육 개최 건수는 06년 11.82건에서 07년 19.97 건으로, 주민정보화 교육실적은 06년 0.33시간에서 07년 0.50 시간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활용 부분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이용률은 06년 53.20%에서 07년 85.2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GIS 활용 업무수(기초 시 지역)는 06년 9.84종에서 07년 11.00종으로, 주민 1인당 SMS 발급실적은 06년 1.17건에서 07년 2.02건으로, PDA 및 태블릿 PC 활용업무수는 06년 3.86건에서 07년 4.9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8] 기초자치단체 평가결과

숙성항목	연도별	기초자치단체																					행정계통별		인구규모별		
		07년		08년		시·군·구																시		군		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청	전라	경상	충청	전라	경상	경남	제주	시	군	구	10만 미 만	10만~ 50만	50만 이상						
정보화 예산 비중(%)	0.53	1.02	-	-	-	-	-	-	-	-	-	-	-	-	-	-	-	-	-	-	-						
정보화 예산 투자 비중(%)	-	-	1.12	0.84	0.82	0.85	0.70	0.82	0.81	0.83	0.86	1.07	0.83	0.88	0.71	0.80	1.04	0.96	0.71	0.84	0.83						
정보화 인력 비중(명/100인)	2.33	1.89	-	0.09	0.04	0.06	0.04	0.04	0.09	0.08	0.05	0.06	0.04	0.04	0.04	0.06	0.06	0.04	0.04	0.04	0.06						
정보화 인력 지원 수준(명수)	-	-	0.09	0.04	0.06	0.04	0.04	0.09	0.08	0.05	0.06	0.04	0.04	0.04	0.04	0.06	0.06	0.04	0.04	0.04	0.06						
정보화 교육 실적(명수)	0.95	-	1.11	0.97	0.74	0.37	0.29	0.29	0.58	0.44	0.95	0.75	0.59	0.38	0.35	0.29	0.33	0.46	0.45	0.77	0.46						
정보화 교육 지원 수준(명수)	81.87	182.48	402.25	26.53	400	0.20	21.80	7.60	90.00	12.22	33.42	5.00	11.79	21.59	9.00	3.30	6.65	17.77	23.77	35.92	30.32						
정보화 교육 지원 수준(명수)	4.82	-	0.94	3.94	3.80	2.99	3.13	2.08	3.33	5.11	2.89	10.00	3.30	2.31	3.73	3.25	4.35	4.52	3.76	4.41	3.72						
주민 1인당 SMS 발급실적	0.90	0.33	0.46	0.36	0.30	0.37	0.30	0.13	0.38	0.38	0.34	0.44	0.22	0.39	0.36	0.37	0.36	0.38	0.33	0.36	0.31						
주민 1인당 SMS 발급실적	3.93	-	3.04	4.75	4.13	4.00	4.80	4.00	4.00	4.94	3.00	2.44	3.94	5.23	2.70	4.90	4.00	3.86	3.94	4.03	3.89						
주민 1인당 SMS 발급실적	85.38	132	89.60	85.25	86.95	85.33	86.97	87.23	87.23	87.23	87.23	87.23	87.23	87.23	87.23	87.23	87.23	87.23	87.23	87.23	87.23						
주민 1인당 SMS 발급실적	10.00	-	32.44	31.19	11.89	25.00	33.40	25.80	13.50	23.39	81.22	6.42	10.44	1.42	11.77	10.26	21.35	22.11	1.42	25.03	11.81						
주민 1인당 SMS 발급실적	16.23	9.84	-	-	-	-	-	-	-	-	-	-	-	-	-	-	-	-	-	-	-						
주민 1인당 SMS 발급실적	15.69	-	-	-	-	-	-	-	-	-	-	-	-	-	-	-	-	-	-	-	-						
주민 1인당 SMS 발급실적	72.70	-	-	-	-	-	-	-	-	-	-	-	-	-	-	-	-	-	-	-	-						
주민 1인당 SMS 발급실적	77.78	21.81	11.83	18.37	34.94	20.02	27.06	4.30	71.70	-	-	-	-	-	-	-	-	-	-	-	-						
주민 1인당 SMS 발급실적	75.03	38.81	22.82	47.91	-	-	-	-	-	-	-	-	-	-	-	-	-	-	-	-	-						
주민 1인당 SMS 발급실적	202	117	139	218	0.87	1.81	0.94	0.96	0.80	0.25	1.73	3.71	1.53	1.20	3.00	215	219	219	219	219	219						
주민 1인당 SMS 발급실적	419	389	5.84	3.13	3.00	2.70	4.00	3.02	2.80	6.19	5.17	9.75	4.50	1.79	5.23	2.87	7.85	6.87	3.87	4.18	4.11						
주민 1인당 SMS 발급실적	72.81	-	72.81	61.44	64.16	59.10	63.73	64.31	66.78	66.27	62.37	65.14	65.52	60.77	66.77	69.66	76.07	68.50	65.34	68.00	65.07						
주민 1인당 SMS 발급실적	2.85	-	2.85	2.84	2.88	1.80	3.00	2.80	2.40	2.87	3.00	3.00	2.88	2.71	2.88	3.00	2.90	2.47	2.36	2.78	2.46						
주민 1인당 SMS 발급실적	126.14	-	126.14	126.14	126.14	126.14	126.14	126.14	126.14	126.14	126.14	126.14	126.14	126.14	126.14	126.14	126.14	126.14	126.14	126.14	126.14						
주민 1인당 SMS 발급실적	8.00	-	8.40	7.25	8.75	7.10	8.80	7.30	7.30	8.32	7.11	10.50	7.31	7.88	8.88	6.57	9.30	8.40	7.72	7.91	7.77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55호, 2009.3

○ 광역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평가 기본지표인 5개 부문 17개 지표 자료를 표준화하여 100점에서 50점 사이로 환산한 다음 측정항목별 배점을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최고 84.78점에서 최저 68.0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16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77.42점, 표준편차는 5.00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최고 85.16점에서 최저 63.72점 사이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230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73.45점, 표준편차는 3.99로 나타났다.

[표 9] 2007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평가 우수기관

구분	광역		기초		구자체	
	시 지역	도 지역	시 지역	군 지역	구 자체	구 자체
상위 그룹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불양시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전남 강진시	충북 음성군 충북 음성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서울 강북구 서울 구로구 서울 서초구 대구 달서구	서울 강북구 서울 구로구 서울 서초구 대구 달서구
하위 그룹	-	-	전남 강진시	전남 영암군	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
2개 기관 평균점수	81.78	84.02	81.84	80.63	80.00	80.00
2개 기관 평균점수	-	-	-	-	-	-

종합	표준편차	CV	표준편차	CV	표준편차	CV	표준편차	CV	표준편차	CV
	시 지역 평균점수	70.54	도 지역 평균점수	78.11	시 지역 평균점수	75.02	군 지역 평균점수	71.89	군 지역 평균점수	73.68
	표준편차	4.96	표준편차	5.21	표준편차	3.93	표준편차	3.78	표준편차	3.62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55호, 2009.3

○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평가 부문별 지니계수를 계산한 것이 [표 10]이다. 지니계수가 4.0 이상이면 지역 간 정보화 격차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평가 부문별 지니계수

부문	측정항목	지니계수	
		광역	기초 ¹⁾
투입	정보화예산 신규투자 비율	0.32366	0.29029
	정보화인력 비율	0.23481	0.18338
	자체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	0.11994	0.495939
	정보화마을 지원 수준	0.18890	-
변화	정보화 교육 수준	0.64422	0.354247
	자체 정보화 교육 실적	0.31147	0.415246
	제도 개선 실적	0.24547	-
	주민정보화 교육 수준	-	0.523278
활용	시도·사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이용률	0.20707	0.470525
	시도 업무관리시스템 이용률	0.32712	-
	GIS 활용 실적	0.03918	0.231711
	m-Government 활용 수준	0.39985	0.360689
	홈페이지 서비스	0.25976	0.063676
성과	우수 사례	0.37797	-
	시민 설문조사	0.15622	-
공통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견수	0.87266	0.921598
	보안 수준	0.19473	0.128657
	기초자치단체 지원 수준	0.27920	-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55호, 2009.3

[참고문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국가정보화백서, 2008.8

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년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2008.2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08.11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일 또는 복수의 지역에 지역 문제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도시기반 분야별로 정보기반 및 정보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정책적 활동을 지역정보화라고 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지역정보화를 문화, 생활 등 여타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IT를 통한 지역 고유의 특화서비스, 해당 지역생활권 중심의 정보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